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막스슈티르너와아나키즘적코뮌주의의관계

매티토마스

매티토마스
막스슈티르너와아나키즘적코뮌주의의관계

kr.theanarchistlibrary.org

차례

서문	3
슈티르너의 사상	3
아나키즘적 코뮌주의자와슈티르너의관계	8
추천도서	11

서문

1884 년막스슈티르너의『유일자와그소유 The Ego and Its Own』가출판된이래, 그에대한반응은완전한부정에서무비판적수용까지다양했다. 슈티르너에관한이상하고모순적인이야기들이논해지고있다. 유명한아나키즘적조합주의자인학자노엄 촘스키는슈티르너가극도로자유지상주의적인자본주의자들 (미국에서는이들이자유지주의자라고도된다) 에게영향을주었다고정의했다. 하지만슈티르너의사상을아나키즘적조합주의조직의근간으로만든사람또한존재한다. 불편함을주기위해쓰인책에관하여다양한해석이등장하는것은, 아마도, 당연한일일것이다.

이소책자의목표는위대한독일사상가의이념을탐색하고, 그것이아나키즘적코뮌주의자에게어떠한가치를가지고있는가를탐색하기위한것이다. 슈티르너의저작에익숙한몇몇독자들은이글에털을곤두세우고, 슈티르너가공개적으로코뮌즘을비판했다고이야기할지도모른다. 물론그러했다. 하지만슈티르너가비판한코뮌즘은아나키스트들역시비판하는바, 권위주의적코뮌즘이다. 아나키즘적코뮌주의는슈티르너의시대에는존재하지도않았다. 그리고슈티르너가생각하고있던바코뮌즘은수도원이나병영의코뮌즘, 자기희생과일반적평등의코뮌즘이었다. 개인이유일자로스스로를발전시킬자유를보장하는코뮌즘을선호하는사람들은슈티르너와비슷한가치를찾을수있을것이다.

슈티르너의 사상

슈티르너는그의저작을“나는무엇을고려해야하는가”라고질문하며시작한다. 그는개인이처음에는신이라는대의를고려하는것으로시작하여인류의대의를, 국가의대의를, 진리를, 정의를, 그리고수천가지다른대의를고려한다고답한다. 하지만개인이고려하지않는유일한대의는그스스로에관한것이다. 나의대의는고려의대상이아니다. 스스로의대를주장하는사람들은이기적이라치부된다. 그대신에개인들은언제나스스로의대앞에다른대의를두라고교육받는다. 우리는스스로가아닌타인을위해일할것을강요받는다. 그러지않으면우리는비도덕적이기주의자가된다. 우리는이타적일때비로소도덕적이될수있다. 우리와무관한대의에따르고, 그대의에복무할때에야말이다.

슈티르너는이것을온전히부정한다. 슈티르너는질문한다. “신은그스스로의것이아닌다른대의에복무하는가? 신실한이들은아니라고답할것이다. 신은총체적이므로, 그의것이아닌대의는존재할수없다. 그렇다

면인류는그스스로의것이아닌다른대의에복무하는가? 인본주의자들은 아니라고답할것이다. 인류는인류의이익에만복무한다. 인본적대의가 아닌대의는있을수없다.”

보라. 신과인류의대의역시오전히이기적이지않은가. 신은그스스로 만을고려한다. 인간또한그러하다. 이에슈티르너는독자들이이위대한 이기주의자들을본받아스스로를주된안건으로두기를촉구한다. 즉, 의 지적으로에고이스트가되라는것이다. 슈티르너에게모든개인들은절대 적으로유일하며, 개인이의식적으로에고이스트가된다면, 그개인은그 녀의개인적유일성을포기하거나, 개인적자발성을제약하려는모든시도 를거부할것이다. 이것은개인의이익보다더높은것을위한복무요청역시 거부한다는뜻이다. 높은신존재나대의에대하여스스로를희생하는이들 은속아넘어간, 무의식적에고이스트일뿐이다. 이들은그들이복종하는 대의가무엇이건간에, 그대의아래에서자신의즐거움과만족을발견하지 만, 인정하지못하는것뿐이다. 이들은단지에고이스트가되고싶지않은 에고이스트일뿐이다.

“개인의모든행동들은암묵적이고, 비밀스러우며, 은밀하고, 내밀한 에고이즘이다. 하지만이것이에고이즘이기에개인들이스스로인정하지 않고, 비밀로두고, 공개하지않아결과적으로무의식적에고이즘이되는 것뿐이다. 그렇기에이것은에고이즘이아니라, 노예적예속, 복무, 자기 포기에불과하다. 개인은에고이스트이지만, 에고이즘을부정하는이상 에고이스트가아니다.”

슈티르너는그의저작을다음과같은울부짖음으로시작하고맺는다. “나는어떠한대의로부터도비롯하지않는다!”이괴테의인용구는오늘날 슈티르너의것으로더유명하다. 슈티르너가인용하지않은괴테의시의다 음절은“그리고세상은나의것이다”이다. 슈티르너에게자신은결코이해 될수없는것이다. 우리모두가각각지속적으로자신을소모하고재생산하 기때문이다. 슈티르너는이자기소모와자기창조의과정을공허를창조한 다고언급한다. “이과정의공허하다는것이아니라, 내가창조자로서모든 것을창조한다는의미에서공허하다.”외적인대의들은언제나개인들이스 스스로를가장나중에고려할것을요구한다. 이것이야말로개인을아무것도 아닌양취급하는것이고, 그개인은이에적극적인수용의대상이되어, 이 에고이스트들에게이용되게된다.

『유일자와그소유』는 3 장으로구성되어있다. 슈티르너는인간의삶 을예시로들어인간발전을역사발전의 3 단계에비교한다. 우리는현실주 의적어린이로써탄생한다. 이기간동안, 어린아이들은부모와같은물 리적, 외적힘에굴복한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은이제약을박차고슈티르 너가언명한바“정신의발견”으로향한다. 어린아이는그지혜와결심을이 용하여그를점검하던물리적힘을회피한다. 이를통해우리는현실적유아 기에서이상적청소년기로이행한다. 물리적외부제약조건은청소년들에

존 F. 웰시 (John F. Welsh) 의 『막스슈티르너의변증법적에고이즘: 새로운해석 Max Stirner's Dialectical Egoism: A New Interpretation』 . 영어로제공되는슈티르너의생각에대한가장철저하고일관된탐구이다. 슈티르너의철학탐구, 사상가벤자민터커, 제임스 L. 워커및도라마르스텐에대한그의영향및슈티르너와니체의관계에대한조사를다룬다.

게더이상위협이되지못한다. 하지만이제그는이성, 양심, 의식, 이상과같은내적제약들을경험한다. 유아는삶의땅부분 (현실적부분) 에엮매인다면, 청소년은하늘부분 (이상론적부분) 에엮매인다. 에고이스트적성년기에돌입할때에야, 이개인은외적인, 현실적인제약조건과내적인, 이상론적인제약조건으로부터자유로울수있다. 슈티르너는이를다음과같이요약한다.

“내가물질과정신의뒤에있는스스로를발견하기에, 나는이후에생각-지혜의뒤편에서그것의창조자이자주인인나스스로를발견해야한다. 영혼의시간에, 사상은그것이나를뛰어넘을때까지자란다. 사상은내주변을배회하며마치열병을앓아보는환등상처럼나를경련시킨다. 끔찍한힘이다. 사상은마치유령과같이스스로형태를가진다. 신, 황제, 교황, 조국등을보라. 내가그형상을파괴한다면, 그리고그것을다시나의것으로만든다면, 나는‘오직나만이유형의것이다’라고선언할것이다. 그리고이제나는세상을나의것이라, 나의소유라선언한다. 나는모든것을나의것이라선언한다.”

그리고슈티르너는역사발전의맥락에서위세개의시기를정의한다. 고대의현실적세계, 근대의이상주의적세계, 그리고아직오지않은에고이스트적미래로말이다. 기독교이전의세계는현실적유년기에대응하고, 기독교세계는이상적청소년기에대응한다. 세속주의의도래와함께, 근대사회는종교에의한사고의지배로부터벗어났다고주장한다. 슈티르너는그렇지않다고말한다. 근대성은종교에의한지배, 즉더높은고결한것에의한지배를더증대시켰을뿐이라는것이다. 프로테스탄트개혁을보자. 종교개혁은“자유이지의종교”를향한문을열어내어교회의권위로부터사람들의삶을해방한해방적사건이었다고칭해진다. 슈티르너는종교개혁을종교적지배의확장이자강화라바라본다. 개혁을통해종교는그이전까지알려져있지않던영역으로침범했다. 로마가톨릭교회는사제들이결혼하지못하게했다. 프로테스탄트는결혼을종교적으로만들었다. 같은방식으로로마가톨릭교회는그조직적이고공식적인사제와전례를통해종교적권위를개인바깥에위치시켰다. 하지만프로테스탄트는사제와전례를철폐하고, “만인사제설”의원칙에따라종교적권위를모든신자에게내재시켰다. 이러한권위로부터개인은달아날수없다. 결과적으로개인들은내적전쟁에놓고, 그욕망을충족하지못하고, 내재화된종교적권위로고통받게된다. 슈티르너는이것을시민과비밀경찰의투쟁에비교한다.

슈티르너는이러한경향이근대를통틀어지속되었다고주장한다. 진보에대한이야기가, 더자유로운사회의성취에대한이야기가, 과거의낡아빠지고죽은가치와전통으로부터벗어나는것에대한이야기가많이되고있지만, 근대성은권위를확대하고강화하여더욱불가침으로만들뿐이다. 이를테면, 인본주의의발흥은십자가에못박힌신을그왕좌에서끌어

내렸지만, 동시에그왕좌를인류에게바쳤다. 하지만인류는너무나도개념적인것이어서개인이복종하기어렵기에, 슈티르너는인본주의는종교와같다고주장한다. “모든무신론자는신실한사람들이다.”슈티르너는인본주의가신정주의보다오히려더폭력적이라고주장한다. 유명과같은인간성은그불신자들에게더욱공포를주기때문이다. 슈티르너에게근대성은오직인민이복종하는추상 (“명령”) 의수를늘렸을뿐이다.

슈티르너는“자유롭다”고자칭하는사람들 (현대적용어로는“진보적”)이되겠다.) 이성상과괴주의자인양비추어지는것을비난한다. 현실적으로이들은“가장근대적인근대인”일뿐이기때문이다. 슈티르너는헤겔주의좌파가독일철학을지배하는것에비판적이었다. 또한정치적, 사회적사상에만연한자유주의를비판했다. 슈티르너는자유주의를정치적자유주의 (오늘날의고전적자유주의), 사회적자유주의 (사회주의), 인본주의적자유주의 (인본주의) 의 3 종류로구분했다. 정치적자유주의는개인을국가안에서자유로운시민으로다루었고, 사회적자유주의는개인을노동자로다루었고, 인본적자유주의는개인을인간으로다루었다. 하지만이모든다양한자유주의는개인의특정한부분을강조하고, 다른부분들의복종을요했다. 슈티르너에게, 모든개인은시민, 노동자, 심지어인간이상의무엇이었다. 인간적본성, 혹은인간의본질은개인으로부터분리될수없고, 그위에놓일수도없다. 한본질이개인위에놓이는것은, 또다른명령에지나지않기때문이다. 슈티르너는어떠한공통적인간의특성도인간위에균립해서는안되며, 개인만이그스스로의살과피로존재한다고말한다.

슈티르너는이근대성비판으로부터에고이스트적미래의기대로이행한다. 그는개인들이모든신성한개념들을떨치고, 스스로를권위의사슬로부터자유롭게할것을주장한다. 해방은다른사람이해줄수있는것이아니다. 슈티르너는자기해방에관해쓰인가장유창한아나키스트적표현을통해스스로의입장을분명히한다.

“자기해방과해방의차이는다음과같다. 오늘날의‘반대파’들은‘자유롭게하는것’에목말라하고, 그것을부르짖고있다. 지배자들은‘적절한때가오면백성들에게해방을선언’하려한다! 적절한때가될때까지착한아가되어야한다. 만약그렇지않는다면, 적절한때는오지않을것이다. 그리스인들에게때가왔을때, 그들은폭군을몰아냈다. 그리고그아이들에게적절한때가왔을때, 그들은아버지로부터독립했다. 만약그리스인들이그폭군들이자비롭게도다수당지위를줄때까지기다렸다면, 아마도어마어마하게기다려야했을것이다. 분별있는아버지는때가오지않는아들을집에서내쫓을것이다. 해방된인간은해방된인간일뿐이다. 해방노예일뿐이고사슬을끌고다니는개일뿐이다. 인간은자유로걸치장한비자유인일뿐이다. 사자의가죽을쓴당나귀가사자인것은아니다.

추천도서

막스슈티르너의 『유일자와그소유』. 슈티르너의유일한책이자대표작. 불행하게도아직까지스테픈 T. 브링턴 (Stephen T. Byington's) 이번역한단하나의영역본만을읽을수있다. 윌피랜드스트라이커 (Wolff Landstreicher) 는가까운시일내선보일새번역본작업을진행중이다.

막스슈티르너의 〈슈티르너의비평가들 Stirner's Critics〉. 이에세이에서슈티르너 (전반적으로제 3 인칭으로지칭한다) 는그의철학을일부잘못해석한부분을명확히한다.

막스슈티르너의 〈우리교육의잘못된원칙 The False Principle of Our Education〉. 『유일자와그소유』 가출간되기전에쓰인기사에서슈티르너는사심없는학자를배출하기위한귀족적교육방식의휴머니즘과유용한시민을배출하기위한민주적사상파의현실주의를동시에비판한다. 슈티르너는후자를편애하는한편교육의목표는대신자유롭고자기창조적인개인들을양성하는것이어야한다고주장한다.

엠마골드만의 〈개인, 사회그리고국가 The Individual, Society, and the State〉. 골드만의가장“슈티르너스러운”에세이.

엠마골드만의 〈도덕의희생자 Victims of Morality〉. 이에세이에서골드만은도덕의명령을“성장에해롭기때문에사람들의마음과마음에활력을주고마비시키는”거짓말이라고공격한다.

“우리스스로를위한베이에어리어그룹”의 『탐욕의권리: 절대적인모든것을요구하는실용적필요성에관한논문 The Right to be Greedy: Theses on the Practical Necessity of Demanding Absolutely Everything』. 슈티르너와마르크스의혼합에영감을받은짧은활동기간의상황주의자적그룹이다. 그룹은“그모든의미에서탐욕은코뮌주의사회의유일한기반이다. 결국탐욕의현재형태는탐욕이충분하지않은것으로 밝혀졌기때문에사라지게된다”고주장한다.

“우리스스로를위한베이에어리어그룹”의 『지능의최소정의 The Minimum Definition of Intelligence』. 스스로의비판적자기이론의구성에관한논문과결합된이데올로기와고정사상에대한비판이다.

오스카와일드 (Oscar Wilde) 의 『사회주의하에서의인간의영혼 The Soul of Man [sic] Under Socialism』. 이아름다운에세이는자유공산주의의가장우변적인에고이스트적방어책중하나이다. 와일드가실제로슈티르너를읽었는지는확실하지않지만그는독일어를읽을수있었고, 이글과 『유일자와그소유』 사이의문체의유사성은그것을읽었을 가능성이있는것처럼보인다. 어쨌든이아나르코멧쟁이의글은진지한에고이즘학습자에게귀중한것이다.

사회주의와코뮌주의에대한주된비판은, 슈티르너당대의사회주의와코뮌주의가개인을무시했기에성립한다. 이이데올로기들은추상적사회에인간의소유권을이양하고자했다. 이는어떠한사람도어떠한것도소유하지못함을의미한다. 권위주의적사회주의는자유경쟁(슈티르너는이것이자유로운것이아니라고지적했다)의문제를치유하기위해모두로부터모든것을외화한다. 이러한종류의코뮌주의는코뮌(공동체)나사회에근거할뿐, 슈티르너가바란바동맹에근거하지않는다. 망령의손에소유권이양되고개인에게아무것도남기지않는코뮌주의는새로운폭압이상도이하도아니게된다. 아나키즘적코뮌주의는이러한에고이스트적시야를바탕으로, 코뮌주의가코뮌그자체를위한것이아니라, 모든유일한개별자들의자기즐거움과자기실현의수단임을인지하여야한다.

슈티르너의에고이스트동맹을이해하는것은그의사상을반란적으로이해하고, 주류아나키스트의혁명에대한관점과연관짓는데중요한일이다. 슈티르너는혁명을거부하고, 반란을선호한다. “혁명은새로운질서를추구한다. 반란은더이상질서정연하지않을것이며, 스스로질서를만들겠다는, 제도에희망을걸지않겠다는우리의선언이다. 하지만슈티르너는집단행동의해방적가능성과각에고이스트의개인적반란을묶어낼필요를인정한다. 슈티르너는파업행동의가치에대해다음과같이언급한다.

“노동자들의손에는가장놀라운힘이쥐어져있다. 그리고만약그들이그것을정확히인지하고사용한다면, 무엇도그들을이길수없다. 그들은단지일하는것을멈추고, 노동의생산물을자신의것이라선언하고, 즐기면된다. 이것이노동쟁의의관점이다. 국가는노동의예속예의존한다. 노동자들이자유로워진다면, 국가는사라질것이다.”

슈티르너는에고이스트들이단결해야한다고주장한다. 하지만이단결은감상적공감이나오도된도덕성따위의목적에서비롯하는것이아니라에고이스트들이다른온전히실현된개인들로부터오는즐거움을누리기위함에서비롯해야한다고말한다. 참된에고이스트적개인은에고이즘의일반화로부터지극한즐거움을누릴수있다. 공통된이해관계를가진에고이스트간의단결은, 그리고모든착취당하고억압된사람들의개인적이해관계에기초한단결은이억압을끝낼것이다. 의지적에고이스트들에게다른아나키스트들이이른것처럼사회혁명은개인적반란의거대한총체로써, 슈티르너가이르는바, 에고이스트동맹이영속적으로“거대하고, 쉽없고, 당당하고, 무의식적이자, 자랑스러운범죄”를범하는것이다. 반란의범죄를, 수용의범죄를, 혁명의범죄를!

“먼거리에서천둥이우르릉거릴때, 하늘이조용해지고우울해지는것이보이지않는가?”

더많은사람들이의식적에고이스트가되어갈수록, 그들은그개인성에대한물리적·영적제약들을거부할것이다. 슈티르너의에고이즘에대한개념은에고이즘이라불린다른철학과분명하다라는것을지적할필요가있다. 슈티르너는자신의이해관계를, 이기심을대변한다. 하지만그는이단어를일반적인존은방식으로사용하지않는다. 슈티르너는끊임없는이윤추구의사도도아니고, 고립이나타인을신경쓰지않는이기심을전도하지도않는다. 슈티르너에게자신의이해관계는각개에고이스트들이적극적으로자기주변의세계를자신의소유물로선언하는것을포함한다. 여기에서슈티르너가사용한소유물이라는단어가, 많은독자들이슈티르너를오해하게하였다. 하지만슈티르너가사용한소유물이라는단어는제한적인, 경제적인단어가아니었다. 오히려슈티르너는이단어를에고이스트와유관하여사용한다. 그렇기에내가어떠한개념에대하여개인적흥미를가질때, 나는그것에손을뻗어그개념을나의소유물로만드는것이다. 의식적에고이스트에게무언가를소유물로만드는유일하게결정적인요인은, 그것을향해손을뻗어가져올의지다. 이러한에고이스트적소유물의적극확보의목적은, 개인들자신의즐거움이다. 슈티르너에게다른사람들도한(상호간의) 자기즐거움의도구가된다.

“나에게다른개인은식량일뿐이다. 나는그들을섭취하고이용한다. 우리는서로에게필요성이라는오직하나의관계만을가진다.”

슈티르너를타인에대한착취의대변자로바라보는이들은쓰여있는것을올바로이해하지못하고있다. 슈티르너는연인이나카페에가는친구들, 놓고있는아이들을예시로들어이러한상호간의자기즐거움이나소비를, 그가에고이스트동맹이라부르는관계를설명한다. 에고이스트동맹은그에참여하는이들이에고이즘으로비롯하여자유롭고자발적으로맺는관계다. 에고이스트들은동맹을이용하지만, 동맹은그들을이용하지않는다. 동맹의모든구성원들은그들의의지로관계를꾸준히갱신한다. 만약어떠한특정구성원이기대에미치지못하거나부족하다면동맹은무언가다른것으로격하된다. 슈티르너는동맹을사회조직의대안적방법론으로, 에고이스트들이“국가라는배를침몰시킨후”개별자의자발성이꼭필수있는상태를촉발할수단으로제시한다.

이것은슈티르너의사상을극도로단순히요약한것이다. 이로써슈티르너의에세이의후반부에대한흥미를불러일으키고맥락을제공하고자함이었다. 슈티르너의사상의광범위함과그관점은그를요약하기어렵게만든다. 그리고이장 자체는두배는더길수있었다. 더궁금한사람이있다면, 이소문서하단부의추천독서목록을참고하기바란다. 모든사람은슈티르너에관해얼마나받아들이고, 그것으로무엇을할지를결정해야한다. 하지만슈티르너는그의저작에대한이러한해석들에대해“그것은당신의문제일뿐, 내가알바는아니다.”라고답한다.

“나는어떠한대의로부터도비롯하지않는다!”

아나키즘적 코뮌주의자와슈티르너의관계

상대적으로최근까지슈티르너에게영향을받은아나키스트들은코뮌주의자가아니었다. 미국에서에고이즘의가장유명한성원인벤자민터커와그동지들은개인주의적아나키스트잡지「자유」를중심으로연계했다. 실제로, 터커는슈티르너의책의첫번쨰영어판출판을주동했다. 하지만, 그는주류아나키즘전통에입각한사상가들에게도큰영향을주었다. 1940년대에, 글래스고아나키스트그룹의아나키즘적조합주의자들은슈티르너의사상을그조직의근간에두었다. 그들은슈티르너의에고이스트동맹에관한생각을산업을자유롭게조직하는방법으로받아들였고, 이를통해조합주의를“에고이즘의응용”이라설명했다. 아나키즘적코뮌주의활동가이자만화가인도날드룸은그그룹의구성원들에게슈티르너를소개받은이후의식적에고이스트가되었다. 엠마골드만의아나키즘은슈티르너나니체와같은사상가들로부터영향을받았다. 그녀의책『아나키즘과다른에세이들』¹ 서문에서, 엠마는슈티르너의철학은“위대한사회적가능성을포함하고있다”고밝힌다. 이후슈티르너에대해비판적으로변한머레이북친은, 어렸을당시“슈티르너의개별성에관한유토피아적시야는점점탈개인화되어가는세상에서개성확립의새로운출발점이되었다”고쓴바있다.

분명하게, 사회에근거한아나키스트들도슈티르너의사상에관심을가져왔다. 그리고오늘날에도그러하다. 혁명가들조차개별성의적들사이에서길을잃고자기희생을부르짖고있는세상에서, 슈티르너의비타협적에고이즘은신선한한숨과같다. 많은코뮌주의자들은하느님아버지, 하느님국가, 하느님기업을부정하면서도, 그자리에하느님공동체를세워놓고는한다. 그리고이것은크로포트킨이말하는바, “그이전어느것보다무서운신성이다.”슈티르너에게있어이모든것은망령이다.

코뮌주의적에고이스트들은인민, 대중, 또는그어떤망령에도복무하지않는다. 그들은그저자신에게복무한다. 그들자신이인민의일부이고, 대중의일부이기때문이다. 우리들자신이행복하지않는데, 어떻게인류가행복해질수있겠는가? 스스로맑스주의적슈티르너주의자라고자처하는‘우리스스로를위한베이에어리어그룹’은“모든혁명가는자신에게만의지할수있으며, 그래야한다. 비이기적인사람들은언제나그충성을다른곳으로옮겨갈수있다. 나아가, 가장탐욕스러운사람들이그들스스로의혁명계획을지킬것임은믿을수있다.”

국가와자본의권위를파괴하지만, 도덕, 인간성, 권리, 이타성과같은고정된개념들의권위를남기고자한다면, 아나키스트들은오직반만을달성하는것이다. 에고이스트들에게이러한망령들은더끔찍하고, 더가

시적인권위의형태가될수있는망령이다. 이타주의는우리문명에있어그무엇보다치명적인미신이다. 노동자들이자본가를배불리기위해매일행하는것이타적행동이다. 여성이남성을“섬기기위해살아가는것”이이타적행동이다. 이타주의의범행은끝이없이나열될수있으며, 의지적에고이스트들에게이타주의적사회주의는권위를다른권위로변환시킬뿐, 그것을철폐하지는못하는, 우스꽝스러운소극笑劇에불과하다. 에고이즘은개인들이어떠한대가도없이죽어가는것을막고자한다. 그리고이발상이에고이즘적코뮌주의자들의반란과수용에대한열망을만들어낸다.

슈티르너의망령에대한관점을현대사회의가장신성한우상인사적소유에대입하면, 이것은거의완전히코뮌주의적이다. 얼마나많은개인들이그들의소유를희생했고, 이끔찍한몰록이얼마나많은삶을망쳐놓았는가? 슈티르너는사유재산에관한권리를 (그가다른일반적인권리들에대해그러한것처럼) 비웃었다. 슈티르너는사적소유는그것을확보하고지킬힘에근거한다고지적한다. 사유재산은또다른망령에지나지않는다. 세상전부가에고이스트의소유이거나소유가되기를기다리고있는것이기때문이다. 다르게말하자면, 코뮌주의적에고이스트들은삶을총체적으로수용하는목적을가진다. 슈티르너는다음과같은훌륭한문장을통해이를시사한다. “나는당신의소유로부터물러나지않는다. 다만나는그것을나의소유라바라본다. 나는어떠한것도‘존중’하지않는다. 당신이나의소유물이라부르는것에대해서도똑같이하도록하라!”

또한슈티르너는노동의분할이나노동그자체와같은자본주의적삶의근본적측면을공격한다.

“모두가스스로를인간으로구축하는과정에서, 인간을기계와같은노동량으로격하한다. 모든노동은인간의만족을목적으로가져야한다. 그렇기에인간은노동의주인이되어야하고, 그것을총체적으로행할수있어야한다. 핀공장에서핀의머리를꽃기만하는노동자, 철사를자르기만하는노동자에게노동은기계적이다. 그노동자는숙련되지못한채로남고, 노동에목적성을가지지못하고, 노동을완성하지못한다. 그노동자는다른자의손이되어이용될뿐이다.”

슈티르너는강제되고, 격하되고, 엄격한자본주의적노동이아닌인민이에고이즘에근거하여참가하고자기실현과자기즐거움을확립할수있는데고이스트적노동을제지한다. 에고이스트적노동은에고이스트동맹을통해다른에고이스트들과함께진행할수있지만, 각구성원들은의지적에고이스트로남아야할것이다. 슈티르너는협동이경쟁보다더만족스러울수있다는것을인지한다.

“섬없는확보는우리에게숨을쉴시간을, 평온한즐거움을앗아간다. 우리는우리의소유로부터즐거울수없다. 그렇기에경쟁적이지않고, 우리의시간과수고를요구하지않는노동에대한합의는언제나도움이된다.”

¹ 국내에는『저주받은아나키즘』으로출판됨.-역자주